

# 우리나라의 工業化進展率과 工業化段階

黃 炳 峻

<目 次>

- I. 工業의 成長推移와 構造
- II. 工業化의 進展率과 內容
- III. 工業化段階와 그 國際比較

## I. 工業의 成長推移와 構造

우리나라 工業은 休戰이 成立된 1953年 이후 급속한 成長을 이룩하였다. 다음의 第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3年 부터 1966年에 이르는 14年間に GNP의 成長率은 年平均 6.3%인데 대하여 工業의 成長率은 13.4%의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同期間의 2次産業 成長率 12.7%를 上廻하고 있다. 또한 1953年을 기준으로 한 成長指數를 보면, 同期間中에 GNP는 222.3이고 2次産業은 485.9, 工業은 505.5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全體附加價値는 약 2倍로 늘어난데 대하여 工業 附加價値의 증대는 5倍 以上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近代의인 工業部門의 급속한 成長은 2次産業 내지 전반적인 國民經濟의 成長過程에 있어서 先導的인 역할을 다해 왔다고 할 수 있다. 工業이야말로 우리나라 經濟에 있어 近代化의 旗手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工業의 成長 Tempo가 높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몇가지 점을 지적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休戰後 數年間の 높은 成長은 그것이 우리나라 經濟의 正常的인 發展過程에서 招致된 現象이라기 보다는 戰後 西獨이나 日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工業施設의 破壞가 尤甚했던 6.25事變後의 戰災復舊過程에서 이루어진 高度成長率이라고 보겠다. 이는 同表에서 1953~56年間の 工業成長率은 平均 19%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둘째, 後進國의 工業化過程에서는 그 成長 Tempo가 빠른 것이 一般의 現象이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後進國은 先進國의 발달한 生産技術, 축적된 資本등을 비교적 손쉽게 利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後進國의 工業化는 先進國이 그 工業化에 소요됐던 만큼의 오랜 時日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立證되고 있는 것이

<第1表>

工業의 成長推移와 그 比較

(1960年 不變 市場價格)

單位 { 附加價值: 10 億圓  
成長率: %

年 度	國 民 總 生 產			2 次 產 業			工 業		
	附加價值	成長率	指 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 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 數
1953	172.10	—	100.0	21.01	—	100.0	13.83	—	100.0
1954	183.71	6.7	106.7	24.67	17.4	117.4	16.56	19.7	119.7
1955	194.49	5.9	113.0	28.95	13.3	137.8	20.02	20.9	144.8
1956	196.56	1.1	114.2	32.07	10.8	152.6	23.25	16.1	168.6
1957	212.45	8.1	123.4	37.03	15.5	176.2	25.34	8.6	183.2
1958	226.19	6.5	131.4	39.96	7.9	190.2	27.72	9.4	200.4
1959	237.10	4.8	137.8	44.62	11.7	212.4	30.36	9.5	219.5
1960	243.14	2.5	141.3	48.41	8.5	230.4	32.98	8.6	238.5
1961	255.19	5.1	148.3	50.96	5.3	242.6	34.76	5.4	251.3
1962	265.60	4.1	154.3	59.86	17.5	284.9	40.55	16.7	293.2
1963	290.25	9.3	168.7	69.55	16.2	331.0	48.07	18.5	347.9
1964	316.15	8.9	183.7	73.48	5.7	349.7	50.96	6.0	368.5
1965	341.73	8.1	198.6	88.06	19.8	419.1	61.11	19.9	441.9
1966 <sup>(1)</sup>	382.56	11.9	222.3	102.09	15.9	485.9	69.89	14.4	505.4
平 均		6.3			12.7			13.4	

註: (1) 1966 年은 暫定推計

資料: 韓國銀行刊『經濟統計年報』1966 年 및 『調査月報』1967 年 1 月號

다. 第1表에 있어서 1961—65 年間的 工業成長率이 대체로 높은 水準을 지속했던 現象은 第1次 5 個年計劃에 따른 外資 및 海外技術의 도입, 新規施設의 확대등, 上述한 바와 같은 後進國 一般의 工業化過程이 計劃적으로 촉진된 結果라고 보겠다. 셋째, 우리나라의 급속한 工業成長은 内外市場의 擴大와 관련성이 깊다고 할 것이다. 그간 國內市場도 확대되었지만, 특히 海外市場의 개척이 촉진되었다. 이는 그 동안의 輸出額의 증대와 輸出構造의 近代化로써 立證될 수 있는 일이다.

다음에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으로 나누어 部門別 成長推移를 第2表에서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우선 1953—56 年의 休戰後는 消費財工業 및 其他工業의 成長 Tempo가 빨랐던 것에 反하여 1962—66 年의 第1次 5 個年計劃 期間中에는 生産財工業의 成長이 오히려 높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消費財工業보다 生産財工業의 成長이 훨씬 높았다. 1953—66 年間に 消費財工業은 年平均 10.2%의 成長率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生産財工業은 같은 기간에 年平均 成長率이 17.9%에 달하였다. 또한 成長指數는 前者가 379.3 인데 대하여 後者는 1,101.9 이다. 말하자면 前者의 成長은 3.8 倍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後者는 11 倍 이상의 成長을 실현하였음을 알 수있다. 그러나 工業全

體의 成長趨勢는 주로 消費財工業의 그것과 거의 같은 步調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注意되어야 할 것이다. 그 理由는 工業의 部門別 構造에 있어 消費財工業의 比重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第2表>

工業部門別 成長 推移

單位 (附加價值: 百萬圓  
成長率: %)

年 度	全 工 業			消 費 財 工 業			生 產 財 工 業			其 他		
	附加價值	成長率	指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數
1953	13,829	—	100.0	11,210	—	100.0	2,357	—	100.0	262	—	100.0
1954	16,561	69.7	119.7	13,181	17.6	117.6	3,027	28.4	128.4	353	34.7	134.7
1955	20,023	20.9	144.8	15,968	21.1	142.4	3,594	18.3	152.5	461	30.6	176.0
1956	23,249	16.1	168.1	18,372	15.1	163.9	4,323	20.3	183.4	545	18.2	208.0
1957	25,336	8.6	183.2	20,057	9.2	178.9	4,732	9.5	200.8	547	0.4	208.8
1958	27,720	9.4	200.4	21,633	7.9	193.0	5,563	7.6	236.0	524	4.2	200.0
1959	30,356	9.5	219.5	23,163	7.1	206.6	6,519	14.9	276.6	674	28.6	257.3
1960	32,981	8.6	238.5	24,338	5.1	217.1	7,936	9.8	336.7	707	4.9	269.8
1961	34,759	5.4	251.3	24,296	0.2	216.7	9,688	22.1	411.0	775	9.6	295.8
1962	40,552	16.7	293.2	26,886	10.7	239.8	12,682	30.9	538.1	984	27.0	375.6
1963	48,066	18.5	347.6	30,886	14.9	275.5	15,960	25.8	677.1	1,219	23.9	465.3
1964	50,958	6.0	368.5	32,419	5.0	289.2	17,382	8.9	737.5	1,157	5.1	441.6
1965	61,112	19.9	441.9	38,615	19.1	344.5	21,474	23.5	911.1	1,023	11.6	390.5
1966	69,889	14.4	505.4	42,524	10.1	379.3	25,974	21.0	1,101.9	1,331	30.1	508.0
平 均		13.4			10.2			17.9			13.4	

註: 消費財工業에는 食料品, 搗精, 飲料品, 煙草, 纖維, 靴·衣類 및 裝身品, 製材 및 木製品, 家具 및 裝飾品, 紙類 및 紙類製品, 印刷·出版 및 同類 似業, 皮革 및 皮革製品, 고무製品, 製造業을 包含함.

生産財工業에는 化學 및 化學製品, 石油 및 石炭製品, 土石 및 유리製品, 第1次 金屬, 金屬製品, 機械, 電氣機器, 輸送用機器 製造業을 包含함.

資料: 韓國銀行, 『國民所得推計資料』 및 第1表에서 作成

이제 다시 工業部門別 成長의 內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第3表에서 業種別 成長指數를 살펴 보기로 한다. 1953年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消費財工業 部門에서는 紙類 및 同製品工業이 1961年에 4.5倍, 66년에는 10倍 이상의 成長을 이루었다. 이는 모든 業種中에서 으뜸간다. 다음으로는 고무製品, 製材 및 木製品工業, 印刷 및 出版業 등의 成長이 높았던 것이 주목된다. 生産財工業部門에 있어서는 1966年까지 電氣機器工業이 약 30倍의 놀라운 成長을 하였고 第1次 金屬, 石油 및 石炭製品工業은 20倍 이상에 달하고 있다. 輸送用機器工業도 11倍의 成長을 이룩하였다. 이리하여 총체적으로 1953年부터 1966年까지의 기간에 消費財工業은 3.8倍의 成長을 하였으나 生産財工業은 11倍 이상의 成長을 성취하였다. 이러한 見地에서 過去부터 不均衡하였던 消費財工業과 生産財

工業의 構成은 점차로 是正되어 왔다고 할 수 있고, 또 工業構造는 高度化되어가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높은 成長率을 나타냈던 生産財工業部門의 業種들은 반드시 附加價値의 絶對額에 있어 巨額의 증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 오히려 消費財工業部門에 속하는 纖維工業, 食品·飲料品工業등이 비록 成長率은 빠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附加價値의 比重에 있어서는 決定的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工業成長은 그와 같은 消費財工業에 의하여 左右되었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工業發展의 後進性이 깃들여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工業成長에 관한 分析을 爲主로 하는 本稿에서도 잠시 工業構造에 관하여 一瞥하여 두는 것이 有益할 것이다.

<第3表>

業種別 工業成長과 그指數

(1953=100.0)

單位:百萬元

業 種 別	1953	1961		1966	
	(附加價値)	附加價値	成長指數	附加價値	成長指數
消費財工業	11,210	24,296	216.7	42,524	379.3
食 料 品	2,541	5,682	223.6	9,091	357.8
飲 料 品	1,208	3,292	272.5	4,381	362.7
煙 草	2,617	3,710	141.8	6,540	249.9
纖 維	2,590	5,878	226.9	11,300	362.9
靴衣類 및 裝身品	514	1,639	318.9	2,135	415.4
製材 및 木製品	302	556	184.1	1,570	519.9
家具 및 裝置品	230	334	145.2	379	164.8
紙類 및 同製品	199	908	456.3	2,185	1,098.0
印刷 및 出版	536	1,091	203.5	2,630	490.7
皮革 및 同製品	221	459	207.7	526	238.0
고 무 製 品	252	747	296.4	1,787	709.1
生産財工業	2,357	9,688	411.0	25,974	1,101.9
化 學	509	2,017	553.4	4,412	866.8
石油 및 石炭製品	179	913	510.1	3,638	2,032.4
土石 및 유리	376	1,923	511.4	5,661	1,505.6
第一次金屬	105	833	793.3	2,331	2,220.0
金屬製品	277	820	296.0	1,393	502.9
機 械	449	1,441	320.9	1,959	436.3
電氣機器	62	374	603.2	1,812	2,922.6
輸送用機器	400	1,367	341.8	4,767	1,191.8
其他製造業	262	775	295.8	1,331	508.0
計	13,829	34,759		69,889	

資料: 第2表와 같음

第4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의 構成은 1953年 부터 1966年에 이르는 14年間に 적지 않은 變化를 이루었다. 즉, 同比率이 53년에는 81對 17이던 것이 66년에는 60對 37로 變化하였다. 그런데 同表에서 其他製造業도 대부분 消費財工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실제로는 消費財工業의 比率이 多少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工業構造의 後進性은 금일에도 아직 길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休戰以後 전반적인 戰災復舊와 더불어 工業復興 및 再建이 추진되었으나, 그것은 비교적 生産의 迂回度가 낮은 資本의 回轉率이 높은 消費財, 특히 基本生活을 充足하기 위한 財貨의 生産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같은 消費財生産의 증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經濟安定을 기하는 當面한 하나의 方途로서도 필요하였다. 따라서 그간 급속한 工業構造의 高度化를 실현하지 못하였던 不得已한 與件도 看過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後進國 工業化에 있어서의 現實인 悲哀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1962年 이후에 있어 1次 5個年計劃의 추진과 더불어 事情은 많이 달라졌다. 生産財工業의 比重은 漸進的이나마 높아졌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發展을 어떻게 策略하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第4表>

工業構造의 變動

單位: %

年 度	全 工 業	消 費 財 工 業	生 產 財 工 業	其 他 製 造 業
1953	100.0	81.1	17.0	1.9
1954	100.0	79.6	18.3	2.1
1955	100.0	79.7	17.9	2.4
1956	100.0	79.0	18.6	2.4
1957	100.0	79.2	18.7	2.1
1958	100.0	78.0	20.1	1.9
1959	100.0	76.3	21.5	2.2
1960	100.0	73.8	24.1	2.6
1961	100.0	69.9	27.9	2.2
1962	100.0	66.3	31.3	2.4
1963	100.0	64.3	33.2	2.5
1964	100.0	63.6	34.1	2.3
1965	100.0	63.2	35.1	1.7
1966	100.0	60.8	37.2	2.0

資料: 第2表에서 作成

## II. 工業化의 進展率과 內容

우리나라는 1953年 부터 1966年에 이르는 14年間に 있어서 國民經濟의 GNP 成長率은 年平均 6.3%이고 工業成長率은 13.4%였다. 또 成長指數은 53年을 기준으로 하여 66

년에 GNP가 222.3, 工業은 505.4로 각각上昇하였다. 말하자면 각각 2.2倍와 5倍로 늘어난 셈이다. 이리하여 國民經濟全體보다는 工業의 成長 速度는 훨씬 빨랐던 것이다. 그 結果 工業化進展도 상당히 빠른 速度로 進行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韓國經濟의 工業化進展度 내지 進展率을 보면 第5表에서와 같이 基準時點인 1953年을 100.0으로 하였을 때 그로부터 14年後인 1966年 現在 227.4에 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經濟는 約 2.3倍의 實質的인 工業化發展이 實現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第5表>

우리나라 經濟의 工業化進展度

單位: %

年 度	進展度	經濟 成長 指數 (A)	工業 成長 指數 (B)	工業化 進展度 (B/A)
1953		100.0	100.0	100.0
1954		106.7	119.7	112.2
1955		113.0	144.8	128.1
1956		114.2	168.1	147.2
1957		123.4	183.2	148.5
1958		131.4	200.4	152.5
1959		137.8	219.5	159.3
1960		141.3	238.5	169.8
1961		148.3	251.3	169.5
1962		154.3	293.2	190.0
1963		168.7	347.6	206.0
1964		183.7	368.5	200.6
1965		198.6	441.9	222.5
1966		222.3	505.4	227.4

資料: 第1表에서 作成

지난 14年間に 約 2.3倍의 工業化進展率이 실현되었다. 이제 다음의 課題는 그와 같은 工業化는 消費財部門의 어느 部門에 있어서 더욱 촉진되었던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工業化가 進展된 部門이 消費財部門이나 또는 生産財部門이냐에 따라 그 지니는 뜻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엄격히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經濟는 이미 分析한 것 처럼 1953~66年間に 있어서 年平均 成長率이 消費財工業은 10.2%였지만 生産財工業은 17.9%로서 前者보다 後者が 거의 倍에 가까운 빠른 成長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成長指數도 基準年度(1953年=100.0)에 比하여 66년에는 消費財工業이 379.3으로서 約 3.8倍의 成長을 했음에 대하여 生産財工業은 1,101.9로서 無慮 11倍 以上の 成長實績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동안 우리 나라 經濟는 生産財工業部門에 있어서 더욱 많은 工業化進展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第6表에서 이를 좀 더 具體的으로 보면 1953~66年間に 있어서 消費財工業化는 約 1.7倍로 進展되었음에 대하여 生産財工業化의 進展은 거의 5倍 가까이 實現되었으므로 韓國經濟는 지난 14年間に 있어서 消費財工業보다도 生産財工業 中心의 工業化가 約 3倍나 크게 實現을 보았다는 結論을 指摘할 수 있다. 이러한 生産財工業化의 進展趨勢는, 同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年代에는 比較的 緩慢한 上昇을 보였지만 生産財工業 中心으로 工業構造의 改編을 서두른 第1次 5個年經濟計劃의 實施와 함께 從來보다도 더 욱 빠른 上昇慢勢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第6表〉 部門別 工業化 進展度

年 度	區 分	全 工 業	消 費 財 工 業	生 產 財 工 業
1953		100.0	100.0	100.0
1954		112.2	110.2	120.3
1955		128.1	126.0	135.0
1956		147.2	132.0	160.6
1957		148.5	145.0	162.7
1958		152.5	146.9	179.6
1959		159.3	149.9	200.7
1960		168.8	153.6	238.3
1961		169.5	146.1	277.1
1962		190.0	155.4	348.7
1963		206.0	163.3	401.4
1964		200.6	157.4	401.5
1965		222.5	173.5	458.8
1966		227.4	170.6	495.7

資料：第2表 및 第5表에서 作成

消費財工業보다 生産財工業의 工業化 進展率이 높았다는 것은 前者보다 後者の 成長率이 높았다는 앞의 分析과 一致되는 結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過去부터 지속된 우리나라 工業構造의 不均衡을 시정하고 構造的 高度化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1966年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進展度는 아직도 後進國의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아래에서 分析하고자 한다.

### III. 工業化段階와 그 國際比較

앞에서 消費財工業部門과 生産財工業部門의 工業化 進展度를 考察하였다. 그리고 前者보다 後者の 進展度가 약 3倍나 빨랐다는 結果를 찾아 내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工業化의

進展도가 이루어진 1966 年の 時點에서 볼때 우리는 果然 어떠한 工業化段階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獨逸의 「호프만」(W. Hoffmann)教授는 그의 著書『工業化的 段階와 類型』(*Stadien und Typen der Industrialisierung*, 1931)에서 世界各國의 工業化段階를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의 純生産額에 대한 比率에 의하여 比較分析함으로써 하나의 傾向法則을 導出하였다. 그 후 다시 그는『工業經濟의 成長』(*The Growth of Industrial Economies*, 1958)에서 새로운 資料를 附加하여 이 法則의 妥當性を 主張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호프만」의 法則(Hoffmann's Law)인 것이다.

그에 의하면 國民經濟의 工業化發展에는 3가지의 段階가 있다고 한다. 이 3段階는 純生産額面에서 본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의 比重如何에 따라 區分되는데, 지금 이를 「호프만」의 比率로서 表示하면 다음의 第7表와 같다. 즉 生産財工業을 1로 하였을 때 工業化的 第1段階는 消費財工業의 比重이  $5 \pm 1$  로서 生産財工業이 극히 未發達한 狀態에 있고 消費財工業이 壓倒的인 優位를 占하는 段階이다. 第2段階는 消費財工業의 比重이

<第7表> 工業化的 3段階

	第 1 段 階	第 2 段 階	第 3 段 階
消費財工業 生産財工業	$\frac{5 \pm 1}{1}$	$\frac{2 \pm 1/2}{1}$	$\frac{1 \pm 1/2}{1}$

資料 : Walther Hoffmann, *Stadien und Typen der Industrialisierung*, 1931.

$2 \pm \frac{1}{2}$ 로서 生産財工業의 比重이 아직 低位에 있기는 하나 그것이 消費財工業 보다도 상당히 빠른 速度로 成長하고 있는 段階이며, 第3段階는 消費財工業의 比重이  $1 \pm \frac{1}{2}$ 로서 消費財工業에 比하여 生産財工業이 훨씬 크게 成長함으로써 兩者가 均衡되거나 혹은 生産財工業의 比重이 더욱 무거운 段階이다.

그와 같은 尺度에 따라 「호프만」은 世界各國의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의 比率을 對照 檢討하여 各 國民經濟의 工業化程度를 量的으로 測定하고 그 發展段階를 規定하였던 것이다. 그의 測定結果에 의하면 1920 年代에 있어서 第1段階에 속하는 나라로서는 「브라질」, 「칠리」, 印度, 「뉴질랜드」가 있다고 하였다. 第2段階에 속한 나라로서는 日本, 「홀란드」, 「캐나다」, 濠洲, 「덴마크」, 「헝가리」, 南阿聯邦등인데 그 중에서 「홀란드」, 「덴마크」, 「캐나다」는 19~20 世紀頃에 이 段階에 들어갔고 濠洲, 南阿聯邦, 日本은 第1次大戦 直前に 들어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第3段階에 속하는 나라는 英國, 佛蘭西, 「스위스」



獨逸, 「벨기에」 「스웨덴」, 美國등인데, 「스웨덴」을 除外하고는 모두 20世紀初부터 이 段階에 到達하였다는 것이다. (1)

<第8表> 各國의 工業化 過程.  
(1920年代)

第 1 段 階 國			第 2 段 階 國			第 3 段 階 國		
國 名	消 工 對 生 工		國 名	消 工 對 生 工		國 名	消 工 對 生 工	
브 라 질	6.2:1		日 本	2.4:1		英 國	1.5:1	
칠 리	4.9:1		홀 란 드	1.8:1		佛 蘭 西	1.5:1	
印 度	4.2:1		캐 나 다	1.7:1		獨 逸	1.1:1	
뉴 질 란 드	3.4:1		濠 洲	1.7:1		美 國	0.8:1	

물론 위와 같은 「호프만」比率과 具體的인 數字에 대해서는 問題點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基準은 오늘날 各國經濟의 工業化段階를 測定할 수 있는 有力한 手段으로서 認定되고 있음이 事實이다.

그러면 위의 「호프만」比率을 基準으로 할 때 韓國經濟의 工業化段階는 어떻게 되겠는가? 다음의 第9表를 보기로 하자. 同表는 그의 方式과 마찬가지로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의 附加價值比率을 1953~66年間に 걸쳐서 算出 表示한 것이다. (2)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消費財工業의 比重이 休戰直後 부터 한동안 上昇하여 1950年代末에는 生産財工業의 4倍에 까지 達하였다가 60年代에 접어들면서 부터 生産財工業의 比重이 漸增하고 消費財工業이 相對的으로 低落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는 點이다. 이것은 消費財工業의 生産物에 대한 需要要因의 增減變動에 基因하는 것이라 함은 이미 指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消費財工業의 過剩肥大와 生産財工業의 低位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工業은 「호프만」의 工業化段階法則에서 보던 1961年에서부터 겨우 工業化의 第2段階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950年代를 거쳐 6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는 消費財工業의 比重이 生産財工業보다도 3倍以上의 높은 水準을 維持하였으므로 1960年까지는 消費財工業이 支配的이고 生産財工業이 현저히 未發達한 狀態에 있는 工業化의 第1段階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1961年 부터 工業化의 第2段階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工業構造의 改編을 指

(1) 英國, 「벨기에」는 1850年頃, 佛蘭西는 1860年代, 日本은 1900年頃에 第1段階에 있었으며 그리고 獨逸, 「스위스」, 佛蘭西는 1890年代, 美國은 1890年頃에 第2段階에 들어 갔다고 한다.  
(2) 「호프만」은 工業全體를 우선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으로 分類하고 生産財工業에는 機械·金屬·車輛·船舶·化學등의 工業을 包含시켰고 消費財工業에는 食品·纖維·皮革·家具등의 工業을 包含시켰다.

向한 第1次 5 個年計劃 期間中에 이 段階를 通過하여 同計劃의 目標年度인 1966 年에 와서는 벌써 工業化의 第3 段階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工業化發展段階는 1961 年당시 1920 年代의 日本의 그것과 같은 水準이었으며 오늘날에는 1920 年代의 英國과 佛蘭西의 工業化段階와 맞먹는 것으로 되어 있다.

<第9表> 우리나라 經濟의 工業化段階 (I)

度	消費財工業 (A)	生産財工業 (B)	$\frac{A}{B}$	A : B
	(百萬원)	(百萬원)		
1953	6,790	1,802	3.7	$4 - \frac{3}{10} : 1$
1954	7,953	2,280	3.5	$4 - \frac{5}{10} : 1$
1955	10,195	2,683	3.8	$4 - \frac{4}{5} : 1$
1956	12,379	3,157	3.9	$4 - \frac{1}{10} : 1$
1957	13,538	3,463	3.9	$4 - \frac{1}{10} : 1$
1958	14,518	3,764	3.9	$4 - \frac{1}{10} : 1$
1959	15,168	4,315	3.5	$4 - \frac{1}{2} : 1$
1960	15,707	5,460	2.9	$3 - \frac{1}{10} : 1$
1961	15,645	6,852	2.3	$2 + \frac{3}{10} : 1$
1962	16,227	9,072	1.8	$2 - \frac{1}{5} : 1$
1963	18,243	11,381	1.6	$2 - \frac{2}{5} : 1$
1964	19,109	11,021	1.7	$2 - \frac{3}{10} : 1$
1965	23,093	13,616	1.7	$2 - \frac{3}{10} : 1$
1966	25,677	16,675	1.5	$1 + \frac{1}{2} : 1$

註: 工業分類는 「호프만」의 방식에 의거하였음.

즉 消費財工業=食品, 飲料品, 纖維, 家具, 皮革.

生産財工業=化學, 第1次金屬, 金屬製品, 機械, 電氣機器, 輸送機器.

資料: 第2表에서 作成

한편 「호프만」의 分類方式과는 달리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의 一般的인 分類方式에 의하여 우리나라 經濟의 工業化段階를 表示한 것이 第10表이다. 여기에서 計數上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이미 1961년에 工業化의 第2段階에 進入하였고 1966년에는 이 過程을 거  
의 벗어나 工業化의 第3段階로 접어드는 문턱에 다달았음을 알 수 있다.

<第10表> 우리나라 經濟의 工業化段階 (II)

年 度	消 費 財 工 業 (A)	生 產 財 工 業 (B)	$\frac{A}{B}$	A : B
1953	11,210	2,357	4.8	$4 + \frac{4}{5} : 1$
1954	13,181	3,027	4.4	$4 + \frac{2}{5} : 1$
1955	15,968	3,594	4.4	$4 + \frac{2}{5} : 1$
1956	18,372	4,323	4.2	$4 + \frac{1}{5} : 1$
1957	20,057	4,732	4.2	$4 + \frac{1}{5} : 1$
1958	21,633	5,563	3.9	$4 - \frac{1}{10} : 1$
1959	23,163	6,519	3.6	$4 - \frac{2}{5} : 1$
1960	24,338	7,936	3.1	$3 + \frac{1}{10} : 1$
1961	24,296	9,688	2.5	$2 + \frac{1}{2} : 1$
1962	26,886	12,682	2.1	$2 + \frac{1}{10} : 1$
1963	30,886	15,960	1.9	$2 + \frac{1}{10} : 1$
1964	32,419	17,382	1.9	$2 - \frac{1}{10} : 1$
1965	38,615	21,474	1.8	$2 - \frac{1}{5} : 1$
1966	42,524	25,974	1.6	$2 - \frac{2}{5} : 1$

註：消費財工業=食品, 飲料品, 煙草, 纖維, 靴衣 및 裝身品, 製材 및 木材品, 家具, 紙類  
印刷, 皮革, 고무.

生産財工業=化學, 石油 및 石炭, 土石 및 유리, 第1次金屬, 金屬製品, 機械, 電氣  
機器, 輸送機器.

資料：第2表에서 作成(第4表 參照).

물론 오늘날 韓國經濟가 과연 「호프만」이 말하는 工業化의 第3段階, 즉 先進國圈內에  
進入하였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餘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生産  
財工業에는 사실상 最終消費用品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比重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推定되므로 순수한 生産財만을 간추려 본다면 위의 結果는 훨씬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生産財工業으로 分類된 化學工業중에는 肥料과 같은 生産財만이 아니고 醫藥品, 化粧品, 비누등의 各種 最終消費用品이 들어 있고, 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아직 工業發展의 基調가 低位에 있고 또 工業全般의 規模(scale)가 작기 때문에 어떤 部門에 大規模의 工場 한 두개만 設立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全體 工業構造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는 要因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立脚하여 본다면 우리나라가 현재 工業化의 第3段階에 進入하였다는 것과 先進工業國이 이段階에 處해 있다는 것과는 性質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解釋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한편에서 보면 「호프만」理論 自體가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들어맞을 수 있는 共通의 尺度로서는 不充分하다는 하나의 理由가 될 것이다.

한걸음 나아가서 오늘날 「호프만」의 法則은 有力한 根據에 立脚한 많은 批判을 받고 있다. 가령 工業化段階를 區分하는데 使用되는 具體的 比率(消費財工業對 生産財工業)을 算定하기 위하여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의 定義를 내림에 있어서 그는 最終生産物 뿐만 아니라 여기에 中間生産物도 包含하고 生産物이 窮極的으로 消費로 向하는가 또는 投資로 向하는가에 따라서 分類한다고 하는 基準을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實際로는 個個業種의 生産物中 75%以上이 消費財 또는 生産財로 된다고 判定되면 그 業種은 消費財工業 또는 生産財工業이라고 하였다. 그 結果 그의 産業分類에서는 消費財工業에는 食品·纖維·皮革·家具의 各 業種만을 包含하고 生産財工業은 金屬·機械·車輛 및 船舶·化學등의 業種만에 局限시키고 있다. 즉 위의 75% 基準을 滿足시키지 못하는 고무·製材·紙類·印刷를 비롯한 몇몇의 중요한 業種이 그의 分析에서는 전혀 除外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法則은 工業全般을 包括한 分析에서 誘發된 것이 아니므로 그 妥當性도 完璧을 期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理論的 缺陷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世界各國 經濟의 工業化段階를 測定할 수 있는 共通의 尺度로서 많이 使用되고 있는 것이 現實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明確한 段階規定이 어려우나 어쨌든 우리나라의 現段階는 工業化의 第2段階에 속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의 「호프만」의 分析方式과는 약간 相異한 角度에서 이루어진 工業化 段階의 類型이 있다. 말하자면, UN에서는 1人當의 工業附加價值額을 基準으로 分類하고 各 類型別로 輕工業과 重工業의 比重에 관한 一種의 國際的인 標準值를 發表하고 있는데, 그 具體的인 內容을 보면 다음의 第11表와 같다.

<第 11 表>

所得類型別 工業構造의 推移

單位：%

年度	全 世 界		類 型 I		類 型 II		類 型 III		類 型 IV	
	輕工業	重工業	輕工業	重工業	輕工業	重工業	輕工業	重工業	輕工業	重工業
1938	54.5	45.5	52.6	47.4	54.9	45.1	55.4	44.6	77.7	22.3
1948	47.3	52.7	44.7	55.3	53.3	46.7	57.4	42.6	74.3	25.7
1953	41.6	58.4	39.3	60.7	47.8	52.2	48.0	52.0	68.9	31.6
1958	40.5	59.5	38.8	61.2	41.3	58.7	41.7	58.3	64.0	36.0

註：(1) 工業化 段階別類型은 1953 年の 人口 1 人當의 工業附加價値를 中心類로 類型 I 은 200 美弗以上, 類型 II는 100~199 美弗, 類型 III은 50~99 美弗, 類型 IV는 50 美弗 未滿의 基準에 의하여 區分한 것임.

(2) 輕工業은 食品·織物·皮革· 고무製品·印刷 및 出版을 包含하고, 重工業은 紙類 化學·非金屬 및 金屬製品을 包含함.

資料：U.N.,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1938-1958, 1960*, pp. 108~110.

<第 12 表>

우리나라 輕·重工業 比重의 推移

單位：%

年 度	輕 工 業	重 工 業
1953	74.2	25.8
1955	73.6	26.4
1958	71.9	28.1
1960	66.8	33.2
1962	56.4	43.6
1964	53.5	46.5
1966	51.3	48.7

註：前掲 第 11 表 註 (2)와 같음.

資料：韓國銀行刊 關係資料에서 作成.

지금 위의 두 表를 比較하여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人口 1 人當의 工業附加價値가 50 弗 未滿인 典型的인 類型 IV에 속하는 國家임을 알 수 있다<sup>(3)</sup>. 具體的인 數値에 立脚하여

(3) 類型 I 에 속하는 國家：北美洲(「캐나다」·美國), 「유럽」諸國(「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佛蘭西·西獨·「룩셈부르크」·「홀란드」·「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英國), 「오세아니아」諸國(「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類型 II 에 속하는 國家：南阿聯邦, 「라틴 아메리카」(「아르헨티나」·「우루과이」)·「유럽」諸國(「핀란드」·「아일랜드」, 伊太利).

類型 III 에 속하는 國家：「라틴 아메리카」諸國(「칠리」·「멕시코」·「베네수엘라」), 日本, 「유럽」諸國(「포르투갈」·「스페인」, 「유고슬라비아」).

類型 IV 에 속하는 國家：「아프리카」 및 中東諸國, 「라틴 아메리카」諸國(「브라질」·「콜롬비아」·「페루」·기타). 東南亞細亞諸國(印度·「파키스탄」·韓國·「필리핀」·自由中國, 其他)

U.N.,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1938-1958*, pp. 70~71 및 pp. 136~141 參照.

좀 더 엄밀하게 따져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年前에 類型II에 속하는 諸國家의 工業構造와 類似한 樣狀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앞으로 第1次 5個年計劃에 이어 第2次 5個年計劃까지 成功的으로 遂行하게 된다면 工業化段階의 類型III에 속하는 諸國家群에 無難히 끼어들 수 있을 것으로 豫見된다.

[ 筆 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教授 ]